



3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음 7월 20일) 제38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중앙부처와 상생 결연 지역경제 활력 찾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행안부 등과 1:1 매칭 완료
관광교류·기부 확산 등 지속가능 소비문화 조성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현안 해결 동력 확보 기대

정부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관광교류와 특산물 판매, 고 향사랑 기부 확산 등 지방 발전을 위한 상생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민생회 복 소비쿠폰 등으로 회복된 소비 증가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사업이다. 대상 지자체는 총 141개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 구 122개, 비수도권 광역시 중 인구감 소지역 12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7개다. 전북은 14개 시군 전체가 포함 돼 있다.

도내 14개 시군 모두 각 지역의 특성과 교류 분야(관광·특산물·고향사랑 기부) 등을 구분해 중앙부처와 협

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특허청, 익산시는 법제처,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김제시는 외교부, 남원시는 소방청, 정읍시와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어 고창군은 행안부, 부안군은 국토교통부, 순창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실군은 기획재정부, 진안군은 국무조정실, 무주군과 장수군은 통계청과 각각 연계돼 있다.

이번 협력사업은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속 직원들의 정기적인 지역 방문으로 관광명소 탐방, 지역 음식 체험, 각종 행사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단체 관광교류, 특산물 공동구매 및 명절 선물 교환 등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워크숍, 토론회, 체

육대회 등 기관 주요 행사를 자매결연 지역에서 우선 개최한다. 휴가철 직원들의 해당 지역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역시 숙박·체험 요금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

기관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은 협력 지역 특산품을 우선 채택하고, 바자회 및 직거래장터를 정례화해 임직원들의 지역특산물 구매도 장려한다.

도는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자매결연을 매개로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해 협력기관 직원들의 지역 방문 빈도를 늘려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도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재영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주도로 자매결연을 확산시키고,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앙 부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생활 인구를 유지하는 등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K-유산 보존·활용 거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준공식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1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연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허민 국가유산청장,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유익식 완주군의회의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준공을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전북 대표 전통주로 추석을 풍성하게

도, '올해의 건배주' 온라인 기획전... 26일까지

GS리테일 '와인25플러스' 플랫폼 통해 진행

이강주·도한 청명주·무주 머루와인 등 7종

행사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전통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민과 소비자들이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대표 전통주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판촉전에 나섰다.

도는 10일부터 26일까지 GS리테일 '와인25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전북도와 전통주 큐레이션·유통 플랫폼 대동여주도가 협력해 마련됐다. 전북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전통주 7종이 선보여지며,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판매 제품은 △조선시대 3대 명주로 꼽히는 '이강주', △대한민국 1호 전통누룩 명인 한영석 명인의 '도한 청명주', △무주 머루로 만든

'무주머루와인', △한국예술문화 명인 함지에 명인의 프리미엄 모주 '대비모주', △완주산 쌀로 빚어 10개월 이상 숙성한 '숨은골약주', △익산산 꿀고구마로 만든 증류주 '리28 고구마소주' 등이다.

소비자는 '우리동네GS앱', 'GS SHOP',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온라인 최저가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전국 약 1만8,000개 GS25 편의점과 500여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손쉽게 수령 가능하다.

민선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주, 16일 전북서 일정 소화

호남특위 1차 전체회의·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진행

호남 발전, 내년도 국가예산·전북 현안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전북에서 호남 발전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호남특위는 지난 8월 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참석한다.

회의에는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최고위원), 이병훈 상임 수석 부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겸 특위 수석 부위원장), 김성 장흥군

수, 그리고 50여 명의 위원들이 함께 한다. 회의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다. 정청래 대표가 주재하며, 이원택 도당 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과 전북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